한일불교 "세계평화 이뤄내 후대 유산으로 남기자"

제37차 한일불교교류대회

"참된 깨달음이 중생구제 평화구현 각종단 다양성 구현…책무 다해야" 쿠마모토 지진피해, 조속복구 기원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진언종 대본산 도쿄 평간사 일원에서 열린 '제37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학술세미나를 비롯해 세계평화기원법회, 환영만찬 등 다채로운 교류사업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세계평화기원법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자승스님과 일한불교교류협회장 후지타 류조스님(오른쪽).

한일 양국의 불교 지도자들이 890여년의 역사를 지닌 일본 고찰에 함께 모여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기여할 것을 서원했다. 또 지난 4월 큐슈 쿠마모토에서 발생한 대형지진으로 희생당한 이들의 극락왕생과 조속한 복구를 기원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는 지난 17일 일본 진언종 대본산인 도쿄 평간사에서 제37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세계평화기원법회를 거행했다.

법회는 일본의 전통불교의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어 한일양국의 국운융창과 인류행복, 한일불교의 중흥발전을 기원하는 뜻에서 일한불교교류협의회 상임이사 미야자와 세륜스님과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 홍파스님이 표백문(表白文)과 축원문을 각각 낭독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250여 명의 사부대중도 한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현대인의 삶에서 종교에 대한 관심은 점차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며 "문명과 자본을 우선시하는 시대와 사회가 정신의 삶을 등한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교인의 책무를 다시금 돌아보며 깊게 성찰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된 깨달음만이 중생을 구제하고 평화를 이룩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부디 오늘의 대회가 후대에 유산으로 회향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일한불교교류협회장 후지타 류조스님도 한국 불교계의 뜻에 깊은 공감의 뜻을 표했다. 후지타 류조스님은 대회사에서 "현대사회는 환경파괴가 거듭돼 각지에서 발생하는 대자연 재해, 끊임없는 민족 간 분쟁을 비롯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일한 불교도들의 경건한 기도를 통해 세계평화 실현과 재해나 분쟁으로 생명을 잃은 모든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합동법회의 의의를 깊이 되새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쿠마모토 지진재해에 정성스런 위로의 애도문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전일본불교회장인 코미네 이치인스님도 축사에서 "세계는 지금 전쟁과 테러 등으로 지옥, 아귀, 수라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불교의 구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대승불교를 신봉하는 양국이 협력해 정치나 사상을 뛰어넘어 마음의 평안을 찾아 크게 비약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 춘광스님도 축사에서 "불자로서 인류 평화와 화합, 자비를 실천하고, 이런 실천이 전 세계로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난 4월 큐슈 지진으로 고통 받는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루속히 복구되어 행복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 이어 '불교신앙의 다양성'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진행됐으며, 지혜의 불로 번뇌와 고통의 근원을 태워버린다는 진언종 종교의식인 '호마법회'도 거행됐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보문종 총무원장 인구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 성문스님 등 한국불교 지도자 100여 명과 일본 대표단 등 250여 명이 참가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는 양국 불교도 간 민간교류 대회로서 양국 불교계는 1977년 10월부터 서울에서 1차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대회까지 매년 주제를 정해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불교교류와 우호를 다지는 세계평화기원대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일본 도쿄=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템플스테이, 시대적 과제해결에 앞장"

韓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

국민에너지 재충전 공익사업 한국사회 작동…또하나의 핵

"템플스테이는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건강한 심신을 회복시켜 사회성까지 확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시작돼 갓 15살 정도 먹은 성장기에 놓여 있지만, 매우 급성장한 성공사례이다."

17일 평간사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사진〉는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유 교수는 '한국불교신앙과 템플스테이'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템플스테이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까닭과 한국불교와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2014년까지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약 300만 명에 육박하고 그 중 외국인 비중도 10%를 넘어서고 있다. 유 교수는 "국가적인 지원과 종단적 차원의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고, 장기적 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굳힌 사례는 템플스테이가 역사상 최초 현상"이라며 "대부분 불교야말로 집착·망상에서 벗어나 본래 자기를 찾게 하는 수행과 생활문화를 가장 잘 갖추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또 "정부도 단지 불교계에 특수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 국민의 정신적 건강과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템플스테이가 한국불교신앙의 자력적 측면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사람들 스스로 삶에 대한 반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템플스테이가 이런 신앙의 자력적 측면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한국 템플스테이는 사회 제도적 프로그램으로 정착해 현대인의 고통과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성장기를 지나 완숙기에 이르면 한국사회를 작동시키는 또 하나의 하위 기능체계로 자리 잡을 뿐 아니라, 한국불교신앙을 새롭게 추동해가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불교신앙의 다양성

'학술발표' 2제

'불교신앙의 다양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템플스테이에 대해 기조발제를 맡은 한국의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사진 왼쪽〉와 일본 와카야마현 고야산 혜광원 주지 콘도 다이겐스님.

"슈쿠보, 사찰요리 수행체험으로 진화"

(템플스테이)

日 혜광원 콘도 다이겐스님

"하루 수십명 참여 명상도 의미" 끊임없이 새로운 길 모색 당부

"저희 절 숙박의 경우 예약사이트는 물론 절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이 가능하다. 수행체험에 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 상업적이라고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절을 방문해 불교를 체험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7일 평간사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와카야마현 고야산 혜광원 주지 콘도 다이겐 스님〈사진〉은 '슈쿠보(템플스테이)의 수행체험에 의한 포교'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콘도 다이겐스님은 참가자들의 요구사항에 맞춰 다양화되고 있는 지역의 템플스테이 사찰 현황을 소개하며, 종래 형태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불교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콘도 다이겐 스님은 "원래 고야산 슈쿠보는 참배자 편의를 위해 숙박을 제공하던 것에서 시작됐는데, 최근에는 사찰요리 코스를 제공하거나 수행에 충실하게 하는 등 다양화 되고 있다"면서 "먼저 다가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포교가 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특히 "일본도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불단에 합장하거나 예불 올리는 모습은 찾기 힘들어지고 불교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직접 절을 찾을 기회를 늘려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는 아자관 명상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아자관 명상이란 부처님과 자신이 일체라고 느낌으로써 성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행이다. 이에 대해 스님은 "일반을 대상으로 한 아자관 명상을 두고 단순 휴식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이것이 인연이 되어 부처님 가르침에 흥미를 갖는 계기가 된다면 결코 무의미한 일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또 "현재는 매일 수십명의 사람이 명상에 참가하고 있다"면서 "몇 십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어떤 일이든 끈기 있게 활동 한 결과라 생각한다"고 밝혔다.